



나는 유난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한다. 몇 년을 방치해두고는 그 존재조차 잊었던 물건도, 쓰레기통으로 내던지려고 보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면서 꼭, 어딘가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 것이다. 내 소유라곤 방 한 칸도 갖고 있지 않는 내가 그 많은 것을 집어지고 있는 것을, 나의 자인들은 사치라며, 짐작이라며 왕성의 목소리가 자지른다. 나 스스로도, 무언가를 가까이 비워두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백함'에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구원의 현장이 나타났다.

김달진 미술연구소

Seoul Art Guide

T. 730-6214-5

또다시 통의동,
‘버리지 못함’에 대한 훌륭한 변명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찾아서...



30년간 '버리지 않은' 자료의 보고, 김달진미술연구소

강화문을 들어서서 경복궁을 감싸고 있는 일대에는 크고 작은 동네가 많이 있다. 예쁘고 이기 지기한 전시공간과 저즈바, 럭셔리한 레스토랑, 특이한 북카페 등이 즐비한 신흥동을 비롯해, 아직도 기왓장을 팔고 있는 오래된 건자상과 칩한 글씨로 대문을 장식한 가게들이 가득한 팔판동, 은근히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작업실이 가득한 가회동, 정성이 나는 수묵이 흘러 이름난 대인 다 아는 정치가들이 마구잡이로 가와집을 사두었다는 1번지, 아발사로 유명한 효자동, 직직한 정돈된 사당이 있는 통인동, 여름철이면 가슴이 병 뚫릴 만큼 시원스런 물줄기를 볼대대는 계곡이 들어선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도시의 오래된 구석아나만큼 그 이름도 가지가지인 많은 동네들이 한 데 엉켜 제각각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 이 동네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이키브를 공색하게 하는 미술자료가 충전된 공간이 있었다.

(김달진 미술연구소)는 미술자료전문가로 알려진 김달진님이 2001년 12월에 만든 일종의 자료실이다. 이곳에 축적된 자료는 주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것들이고, 이를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운영자 김달진님은 일간 '서울아트가이드'를 통해 미술전시 및 강행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VoLa 30여 년간 4000여권의 자료를 모았다고 들었다. 미술자료를 모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

김달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7-80년대는 미술잡지나 서적 등이 귀할 때였지요. 관련 서적이 나오면 '이 말의 명화 같은 거 하나씩 훑어 모으는 재미'로 챙기기 시작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은 연구소도 인정제도로 올랐고, '서울아트가이드'를 통해 새로운 전시정보나 강행물 정보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알아서 보내주는 자료들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어요.

VoLa (김달진미술연구소)라는 오프라인 공간도 그렇지만, 사실 <달진닷컴>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굳이 오프라인 공간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김달진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자료는 모두 2차적인 것이다. 그림과 텍스트들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원소스들을 갖추지 않고서는 온라인자료도 존재할 수 없다. 1차 자료를 보존하



고 영구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 개인적으로 하기는 정말 너무 벅하다. 보다 객관적이고 더욱 풍부한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줘야 한다.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VoLa 온라인 대체와 오프라인공간을 함께 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김달진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DB화하는 일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외화하는 매체 '서울아트가이드'를 통해 더욱 풍성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간 '달진닷컴'에서는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지면에서도 다룰 수 없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VoLa 보일라도 <보일락>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운용해왔었다. 하지만 <보일락>은 지인들의 사정방 정도로 밖에 발전시키지 못했다. 달진닷컴과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달진 물론 나도 처음에는 이런 정보지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오랫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다가, 광고 따졌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고작 '영업사원'에 불과했었다. 자괴감도 생기곤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김달진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한다. 막대한 물량과 자금지원을 받으며 진행하는 책도 신뢰가 없으면 이야기지 못한다. 약속한 부수만큼 찍어내고, 광고뿐 아니라 유용한 정보들도 확대하고, 지면도 점점 늘어나고, 책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책이 점점 나아지니 약속한 것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또다시 광고나 전시정보가 더 잘 오게 되고, 모두가 '사명'을 믿고 매체를 믿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Vol.1 서울아트가이드는 어떤 책인가?

김달진 이 책은 정보지다. 전시 및 행사, 미술관련 서적 등에 대한 광고로 가득 차 있다. 광고도 예사지다.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보여주었고 그 사이에 있는 콘텐츠도 유용하도록 구성된 책이다. 처음에야 기러성 같은 미술전문 잡지도 있고 정보지 하나 가지고 시장에서 어떨지 조바심이 있었다. 2년 정도 지나니 사람들 손에 서울아트가이드가 들려있고, 메이저 화랑들이 광고를 싣기 시작하니 어느 정도 케도에 오를 수 있게 되더라.

처음 1만5천부정도로 시작했지만, 한 전시가 자체 뎀플릿을 1000부 2000부 정도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있는 셈이니 점점 우리 매체와 관계를 맺어지게 되었던 것 같다.

Vol.2 나오는 과정도 궁금하다.

김달진 전시정보를 게재하기 원하는 화랑이나 갤러리로부터 1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그 공간의 전시장소를 알려준다. 독자들은 미술정보를 제공하면서 돈까지 취하려는 건 최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책임감이 더 생긴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돈을 받으니까, 전시준비 등으로 정신없는 갤러리에 일일이 연락하고 독촉해서 전시정보를 취합하고, 화랑 쪽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까 더욱 행거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전시장소는 매달 15일까지 받아 익월 집지에 반영한다.

Vol.3 갤러리나 화랑 같은 전시공간에 대한 욕심은 없었나?

김달진 처음에는 내가 축적한 자료들과 평론가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컨설팅도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들어와야 사람을 꾸리니까 하는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다른 부분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Vol.4 보일러의 독자들 가운데는 문화의 생산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다. 1인 블로그를 비롯해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공간을 가지거나 운영해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는 데 신혜로서 한 마디 조언을 해 주면?

김달진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어느정도 이르면 가는가 끊임없이 가능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자기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정도라면 그치겠다고 망각했다면, 자신의 매체나 공간이 많이 유통해지지 않더라도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누구나 가지는 그런 목표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정한 목표와 그 달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전체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Vol.5 본 기지도 될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겁남도 되지 못한다.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화 되고 특권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오랫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결심한 것은 쉽지 않은 데도라고 여겨진다.

김달진 김달진이라는 사람 말고도 미술자료를 수집해온 사람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두 개인적인 활동에 그치고 만다. 정부간행물에 나오는 전시기록도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고 있다. 나는 내기 모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전시자료의 오류를 지적해내고 보다 정확한 정보가 축적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연구에 있어서도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모두에게 공유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구는 방향성정하나 그 깊이 면에서 훨씬 성숙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 기록을 공유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콘텐츠 도큐멘테이션연구회라는 학회를 비롯해 기록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에 기록을 생활화하고 있는 일본의 국민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도 축적된 결과물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자료의 보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개인의 몫으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미술계 비칭작인 인명록, 작고작가인명록 등을 통해 미술연구의 사람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하는 일은 오랜 숙원 사업이다.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 국가나 혹은 더 영향력 있는 단위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김달진님은 미술계에, 나라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큰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 김달진님은 오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차곡차곡 전시 뎀플릿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www.daljin.com